

왕실의 원찰이면서 태실까지 둔 정도 도량

의숙공주의 왕생을 발원한 백련사(白蓮寺)

종교의 역할 가운데 현실세계에서의 구원은 매우 중요하다. 타종교와 달리 불교는 자신의 수행에 의한 성불이 기본이다. 그런데 그 길은 매우 어려워 난행도(難行道)라 한다. 반면에 쉬운 방법도 있다. 부처님 명호를 칭하는 타력에 의지해서 빠르게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이행도(易行道)라 한다. 이행도의 대표적인 신앙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정도사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일반대중의 대표적인 신앙이었다.

극락정도는 어디에 있을까? 서쪽으로 십 만억 국토를 지나면 칠보로 장식된 세계가 나오고,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협시보살로 둔 아미타불이 있다. 이곳은 수행하기 최적의 조건이다. 물질적으로 풍요하여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고, 항상 법을 물어 공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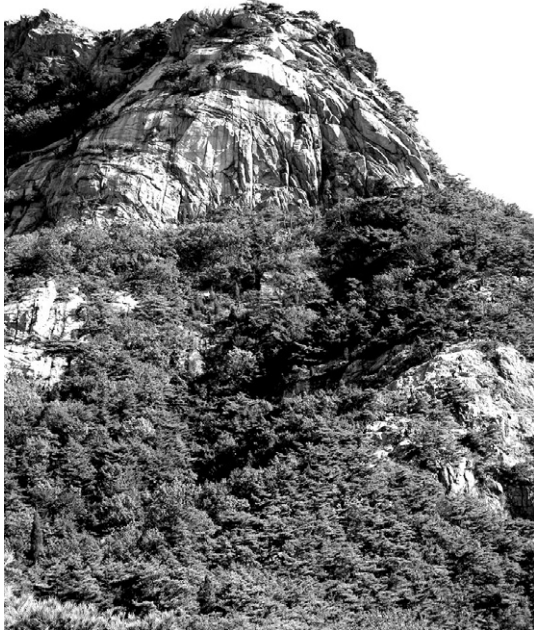
이곳은 어떻게 가는 것일까?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열 번만 부르면 이곳에 갈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굳이 살아생전 기도하고 수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죽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열 번만 하면 되니까 말이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행한 수행의 공덕이 다르다. 힘들게 했으면 공덕이 많고 쉽게 했으면 공덕이 적다. 경전에도 죽을 때 마음을 내어 열 번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 가진 가지만 극락의 변두리에 태어난다. 극락에는 중앙과 변두리가 있다. 당연히 수행환경도 다르다. 그리고 변두리에서 태어나 중앙으로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웬만하면 극락은 중앙에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세로 염불하여야 한다.

첫째, 일체중생에게 항상 인자한 마음을 내고 일체중생의 행을 훼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 행을 훼방하면 끝내 왕생하지 못한다. 둘째, 일체중생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잔인하게 해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셋째, 호법심(護法心)을 발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고 일체의 법을 비방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인욕하는 마음으로 결정심(決定心)을 내어야 한다. 다섯째, 깊고 깊은 청정한 마음으로 이양(利養)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일체중생(一切種智心)을 일으켜 항상 생각하여 잊지 않아야 한다. 일곱째, 일체중생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내어 아मान을 버리고 말할 때마다 겸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여덟째, 세간에서 하는 말에 탐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아홉째, 깨달으려는 뜻을 두고 여러 가지 선근의 인연을 깊이 일으키고 시끄럽고 산만한 마음을 멀리 여의는 것이다. 열째, 정념(正念)으로 부처님을 관함으로써 모든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쉬운 방법 때문에 정도신앙은 일찍부터 성행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정도신앙으로 유명한 곳이 많다. 서울의 사찰 가운데 정도신앙으로 유명한 곳은 서대문구 홍은동 백련산에 있는 백련사이다. 예전의 이름은 정도사(淨土寺)였다. 도성의 서쪽에 위치한 탓에 일찍부터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정도

홍은동 백련사 옛이름 정도사
도성 서쪽 위치 극락왕생 발원
정종 피병·의숙공주의 원찰
유생들 독서당 이용 문제 돼



백련사가 자리한 백련산 정경

신앙이 유명하였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정도사에 다녀와야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을 정도였다. 지금도 많은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백련사를 참배한다. 산세가 높지 않지만 숲이 좋았던 이곳에 백련사는 일찍 창건되었으나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은 조선 초 왕실과 인연이 맺어진 이후이다. 이곳은 도성에서 가깝고 숲이 우거져 병을 치료하기 좋았다. 태종 13년(1413) 4월 상양인 정종이 병이 나자 이곳으로 피병을 나왔다. 보름정도 요양한 다음 관원주 목사 관원의 집으로 옮겨갔을 정도이다.

이곳이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사찰로 이름을 얻은 것은 세조의 딸 의숙공주(1442~1477)의 원찰이 되면서이다. 공주는 세조의 장녀로 이름은 세선(世宣)이었다. 영의정 정인지의 아들 정현조에게 하가하였으나 슬하에 자식 없이 일찍 죽었다. 정현조는 이정의 딸과 결혼하여 후손을 이었지만 부마의 지위를 잃었다. 조선조 부마가 다시 결혼하면 그 자리가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백련사는 의숙공주의 제사를 지내면서 크게 중창되었다. 명종 1년(1546) 1월 6일 사헌부에서 유생들의 정거에 대한 철회를 청하는 대화 속에 "정도사는 다른 사찰에 비할 것이 아니다. 조종으로부터 공주를 위해 창립하여 제사 지낼 장소로 삼고 승려로 하여금 수호하게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백련사는 광해군의 형 임해군에 의해 큰 경제적 부담을 지기도 했으나 왕실의 태실을 둔 뒤 다시 기도처가 되었다.

공주를 위해 크게 중창한 정도사가 명종 때 유생들의 독서당으로 이용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임금의 유생의 독서는 다른 사찰이라면 본디 무방하지만 정도사는 공주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금지하였다. 이에 대해 사헌부는 유생을 정거한 명을 도로 거두고 아울러 공주를 승사(僧寺)에서 제사지내는 일도 금하라 청하였지만 임금은 윤허하지 않았다.

다음날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신광한(申光漢)은 의숙 공주의 제사는 본래 정해진 처소가 있는데도 사찰에서 행하는 것은 번복한 일이며, 유생이 조용한 곳에 가서 독서하려는 것을 정거한 것은 지나치며, 그리고 이 명이 발표되면서 사방의 선비들이 모두 해괴하게 여기므로 명을 거두고 아울러 정도사에서는 공주의 제사도 행하지 말라고 청하였다.

이에 임금은 정도사는 다른 절에 비할 것이 아닌데 무위배들이 부산스럽게 모여 폐해를 만들고 있다. 때문에 만일 법을 어겨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정거법에 의해 처벌할 것을 지시하며 윤허하지 않았다. 다만 임금이 친히 제사를 지내러 가지 못하여 인자(人子)의 예도에 있어 매우 미안하여 이를 행하려 하였으나 아편 뜻이 타당한 것 같아 자신이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만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명종이 신료의 끈질긴 청에도 굴하지 않고 정도사에서 독서하는 것을 윤허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

은 이유 때문이다. 명종은 중종의 소생이다. 중종은 연산군이 왕위로 있을 때 잡지에 머물러 있을 때 의숙공주의 시양(侍養)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조모가 되기 때문에 정도사는 다른 사찰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의숙공주의 삭방을 행할 때 내수사에서 제물을 장만하였던 것이다.

이런 정도사였지만 왕실에 의한 폐해도 있었다. 광해군의 형 임해군은 월당이 모두 15곳이나 되었다. 그런데 시주하기를 좋아해서 월당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에서 시주를 받아가기 위해서 월당을 많이 두었다. 정도사 역시 도성에 가까웠던 탓으로 임해군의 요구로 산채와 동물은 그의 궁에 끊이지 않고 대야 했다. 무척 괴로운 일이었지만 피해갈 수도 그만둘 수도 없었다. 임해군이 성격이 포악했기 때문이다.

임해군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은 선전적으로 포악한 면도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 포로가 되어 겪은 정신적 어려움이 그를 더욱 포악하게 만들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명에 의하여 순화군(順和君)과 함께 김귀영, 윤탁연 등을 대동하고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하여 함경도로 떠났다. 그러나 병사를 모집하지 못하고 오히려 9월 배반한 국경인 등에 의하여 왜장 가토(加藤清正)에게 넘겨졌다. 왕족으로서의 체면을 구긴 그는 여러 차례

협상 끝에 석방되어 서울로 돌아왔지만 포로가 되었던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그 포악함은 더욱 심해졌다. 분을 발산시키기 위하여 길거리를 해매기도 하고, 민가에 들어가 재물을 약탈하는가 하면 일반 백성을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성격이 그러했으니 사찰인들 폐해가 없었을까.

정도사가 그런 잡역에서 면제될 수 있었던 것은 왕실의 태실을 두면서부터이다. 인조 4년(1626) 8월 예조에서 정도사 앞 봉우리에 대전(大殿)과 왕세자의 태실을 두고 후일 그곳을 모르게 될 것을 염려하여 표시해 두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백련사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극락왕생의 도량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조선조 사찰은 왕실의 원찰이 되거나 하다못해 태실이라도 두어야 유생들의 행패는 물론 각기 잡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런데 백련사는 왕실의 원찰이면서 태실까지 두었으니 명당은 명당인 모양이다. 아마도 이곳을 다녀가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중생들의 믿음이 생긴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김경집/지각대 교수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 종합반 : (1)매주 목요일 (2)개월과정 (2)훈련식 교육임으로 하시라도 등록 가능함
- ◆ 특 해 : (1)3인이 함께 등록할 경우 원하는 일시에 맞추어 드림 (2)개인지도, 출장지도 가능함 - 직접 상담 결정함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중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7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사랑하는 마음만을 전달합니다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 의 : 매월 첫주 시작 4회 완성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임진년 운달 성지 순례 관음을 찾아서

임진년 흑룡의 해 윤달 맞이 성지순례를 관세음보살성지인 보타산 보제선사, 불정산 해제선사, 범우사등 3대사찰과 500나한존자가 계시는 낙가산 등 성지순례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대덕스님 및 불자님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출 발 지 : 부산 김해공항
상 해 - 보타산 - 낙가산 - 황산

출 발 일 : 3월 19일 - 23일 (4박 5일)
마 감 일 : 3월 9일까지 여권 지침자에 한함
기타문의 : 하나투어 VIP 여행사

055)743-5001, 010-4556-9167

영남 범음범패 전문 교육

전통사찰 안정사 영산재 교육원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 1)초급반 : 사물(요령, 목탁, 태징, 범고)다루는 법, 도량서, 쇠승, 각단예불, 의식
- 2)중급반 : 상주권공, 신중작법, 대령관육, 천도재(49제), 각종의식
- 3)작법반 : 오공양작법, 대계작법, 요점작법, 천수바라, 요점바라, 관육바라, 사다라니바라
- 4)고급반 : 운심계, 삼귀의작법(초급, 중급 수료자에 한함,)

□ 개강일시 : 2012년 2월 7일 (화요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6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2장 (상시 모집)

* 본원은 종파를 초월한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 수여, 승려후보생도 수강 할 수 있으며 승려수계득도, 포교원 지도면의도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전통의식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 안정사 강원
(사)안정사 영산재 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54-3 055)649-6711
팩스 055) 649-6712 HP : 011-874-6775